

보조사 ‘-요’의 음장 변화에 따른 청자의 지각 차이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Listener Perception of Durational Change in the Korean Auxiliary Particle ‘-yo’

윤 은 경¹⁾ · 김 슬 기²⁾

Yoon, Eunkyung · Kim, Sulki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listeners perceive a different level of politeness when the duration of the Korean sentence-final auxiliary particle ‘-yo’ is varied. A total of 10 Korean sentences were manipulated by lengthening and shortening ‘-yo’ by 10%, 20%, and 30%. The participants included native Korean speakers and Chinese and Japanese learners of Korean (n=10, respectively). They were asked to rate the level of politeness of the stimuli on a 9-point scale. It was found that Korean listeners perceived decreased politeness as the duration of ‘-yo’ was shortened and increased politeness as it was lengthened. However, Chinese and Japanese listeners did not perceive a different level of politeness from the manipulated sentenc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teach L2 speakers that the duration of the auxiliary particle ‘-yo’ plays a role in Korean listeners’ perception of politeness.

Keywords: politeness, Korean auxiliary particle *yo*, duration manipulation, speech perception

1. 서론

한국어의 조사 ‘-요’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청자에 대한 예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보조사 ‘-요’를 종결어미 ‘-어/아’와 결합한 하나의 문법적 덩어리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어/아요’는 동일한 문법 형태를 사용하여 평서, 의문, 청유, 명령문에 쓰이며 억양에 따라 다른 서법의 기능을 표현한다. 즉, 의문문인 ‘먹어요?’, 평서문의 ‘먹어요’, 청유문인 ‘(같이) 먹어요’, 그리고 명령문인 ‘먹어요!’는 쓰기에서와 달리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구두점으로 문장의 종류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문미억양의 오르내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미억양의 기능이

충실하게 실행되어야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억양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억양은 서법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화자의 태도와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소리의 속도를 변화시키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의 의도와 달리 음의 길이로 인해 청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요’는 청자 존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 중에서 조사 ‘-요’를 지나치게 짧게 발화하는 경우에 존대의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해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친절한 말투를 사용한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모국어 간섭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 ‘아니요’의 뜻을 나타내는 ‘没有’의 한어병음인 [mei you]에서 마지막 음절 [you]는 한국어의 문미 억양에 나타나는 ‘-요’와 발음은 비슷하나 한국어보다 훨씬 짧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정적 전이가 한국어

1) 서울대학교. heavynub@hotmail.com, 교신저자

2)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skimpb@gmail.com

이 논문은 2011년 8월 제35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접수일자: 2011년 11월 3일

수정일자: 2011년 12월 6일

게재결정: 2011년 12월 12일

모어 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각 실험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중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의 문미에 나타나는 종조사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생성되는 의미에 따라 음의 길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2장의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본어 모어 화자들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 종조사 ‘よ’ 혹은 ‘ね’를 강조하여 길게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다.³⁾ 이러한 일본어 문말음절의 음의 길이의 변화가 한국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L1의 언어적 배경이 다른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인 음성 조작을 통해 억양이 보여 주는 감정 전달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미음절에 나타나는 보조사 ‘-요’의 속도의 증감(±30%)이 청자의 지각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2. 문헌연구

2.1 한국어 보조사 ‘-요’의 문법적 기능

서정수(2006)에 의하면, 대우법이란 말하는 이가 대인 관계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나 화제 인물을 알맞게 대접하는 말씨가 대우법이다. 즉, 대우법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윗사람이나 존대를 해야 할 이들에게 쓰이는 말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현대에는 동료끼리 혹은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씨도 비중이 커졌다. 조사 ‘-요’는 종결어미에 붙어 ‘해요체’를 형성하며 오늘날 가장 폭넓게 쓰이는 대우법 중 하나로 비격식에서 합쇼체보다 더 많이 쓰인다. 이익섭·이상익·채완(1997)에 의하면 상위의 사람에게도 아주 격식을 차리지 않을 때에는 합쇼체보다 해요체가 많이 쓰인다. 게다가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합쇼체가 어울리지 않아 존댓말을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경우 해요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폭넓게 쓰인다고 하였다. 흔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길을 묻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에도 해요체가 쓰인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는 ‘-요’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김정숙 외(2005)에서는 ‘-요’를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종결어미 -아, -지, -네, -거든, 명사, 부사, 조사, 연결어미

등에 붙어 윗사람이나 높임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존대의 뜻으로 말하며 문장을 끝낼 때 쓰거나,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 존대하여 말할 때 주로 쓰인다고 하였다. 높임의 해요체와 안 높임의 해체로 구분되는 비격식체는 대화자들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고 더 친근하고 융통성 있는 정감적인 태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높임의 방법이다. 이때 특정한 문체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범화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정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다.

백봉자(2006)에 의하면, ‘-요’는 종결어미로서 문장 끝이나 부사/부사절 혹은 연결어미나 명사에 붙여서 쓴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김정숙 외(2005)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단, 후자에서 ‘-어/아/여요’는 해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법 형태가 서술형, 의문형, 청유형에 사용되므로 서법상의 차이는 대화의 상황과 억양에 따라 구분된다는 부분에 대해 부가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희자·김종희(2001)는 문장 종결 조사로서 문장의 끝이나 독립된 구 성분 뒤에 쓰여, 해요체를 이루어 ‘-어, -지, -올래’ 등 해체의 종결어미에 붙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친근한 높임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거나, 말뚱처럼 문장의 중간에도 쓰여, 할 말을 고르거나 주저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앞서 두 사전과 다른 것은 ‘합니다요’와 같이 일부 계층이나 방언 등에서 말하는 이가 자신을 더 낮춤으로써 듣는 이를 더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법 사전이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문헌들에서는 ‘-요’에 대한 문법적 기능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초분절적 요소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 중국어의 어기조사: 경성

김지혜(1998)에 의하면, 중국어는 성조언어로 제1성(陰平), 제2성(陽平), 제3성(上聲), 제4성(去聲)과 경성(經聲)이 있다. 성조는 시간에 따른 음높이의 변화를 의미하며 음절마다 각각 성조가 있다. 이에 반해 경성은 시간에 따른 음높이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성은 음의 길이, 크기, 높이의 세 가지 운을 자질 가운데 음의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 즉, 경성은 고정된 음높이는 없으나, 앞 음절에 의하여 음높이가 결정되고 비강세로 인하여 해당 음절의 성조가 상실되거나 약화되어 나타난다. 경성은 비어두에 오는 단어나 구에서 비강세 음절이어야 하고, 최소한 성조를 가지고 있는 음절에 후행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刘月华·潘文·故韦华(2005, 정승미 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어기조사(吗, 吧, 呢, 啊, 的, 了)는 문장의 끝에 쓰여 진술, 의문, 명령, 감탄 등의 서법을 나타내는데, 주로 문미에서

3) 배덕희(200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한국어의 ‘-요’는 일본어의 ‘よ’와 ‘ね’에 상응한다고 본다고 기술하였다.

4) 원자료의 속도를 ±30%로 한 이유는 모의실험 결과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최대 30% 정도까지 발화속도를 조절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짧거나 길어질 경우 자연스러운 발화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는 경성으로 실현된다. 즉, 문미에서는 해당 음절의 성조가 상실되거나 약화되어 음성적으로 짧게 실현된다. 또한 문장의 고저승강의 억양 변화가 주로 어기조사 앞의 음절에 반영되어 어기조사 자체의 음높이에도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결어미를 중국어의 어기조사와 같은 유형으로 인식할 경우 한국어의 종결어미를 경성처럼 발음하여 매우 짧게 발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국어 특성의 부정적 전이로 의해 한국인 청자들은 중국인의 발화가 불친절하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2.3 일본어의 종조사 'よ'와 'ね'

이봉(2009)과 배덕희(2002)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말 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일본어의 종조사 'よ'와 'ね'가 한국어의 종결어미인 '-지(요), -군(요), -네(요)'에 대응하는 형태라고 보았다. 본고의 관심 대상은 한국어의 종결어미에 연결되는 보조사 '-요'와 대응되는 일본어의 문법 형태를 찾아 청자의 지각 반응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므로 일본어의 여러 종조사 중에서 'よ'와 'ね'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⁵⁾

田中真一·窪園晴夫(1999: 120-125)에 의하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종조사 'よ'는 청자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 화자의 감정이나 판단을 청자에게 들려주는 경우에 사용한다. 여기에 상승의 억양이 실리면 가벼운 느낌으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그 외에도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부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もう八時だよ(ね)。子供は早くねなさい。'는 '8시다. 아이들은 어서 자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화자인 엄마는 청자인 어린이에게 8시라는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よ'를 문미에 붙여 상승억양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잘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적으로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문미의 'よ'에 하강의 억양이 실리면 화자와 청자의 인식이나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 '놀람, 낙담, 불만' 등의 어조를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면, '約束の時間は八時ですよ(ね)。あんなに確認したじゃないですか。'의 경우, 약속 시간이 8시였는데, 몇 번이나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청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어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자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ね'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사용한다. 'ね' 또한 상승 혹은 하강 억양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가된다. 상승 억양이 실릴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의 인식이나 감정이 청자와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자에게 확인하고, 답을 구하는 양

상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君も、もちろん行くね(ね)?'는 '너도 역시 가는 거지?'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ね'는 특별히 강조되어 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하강의 억양이 실릴 경우에는 청자에게 'よ'와 같이 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능보다는 화자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화자의 놀람이나 낙담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この本は、以外と面白いだね(ね)。'와 같이 '이 책 의외로 재미있네!'의 느낌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종조사 'よ'와 'ね'의 문법적 기능은 억양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과 하강에 따른 음높이의 변화 이외에 음의 길이의 변화가 주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2.4 '-요'의 음의 길이 관련 선행연구

김은애 외(2008)에 의하면 억양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고(예, 이호영 1996), 2000년 이후(예, 정명숙 2003)에서야 일본인과 중국인 대상의 한국어 억양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사 '-요'의 발화 속도가 청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였다. 단지 산출의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들과 한국인 화자들과의 문미억양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논문들은 있었다. 권성미(2011)와 최현정(2009, 2011)에 의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문미 억양을 실현함에 있어서 문미음절을 장음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권성미(2011)에서는 중국인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신문말 음절 대비 문말 음절의 길이 비율을 측정된 결과 평서문에 있어서 두 학습자 집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 비해 문말 음절의 길이를 확연하게 짧게 발화하는 반면, 고급 학습자들은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와 큰 차이 없이 음절의 길이를 장음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최현정(2009, 2011)은 한국인들이 발화한 문말 음절의 평균 길이가 207ms에 비해 중국인 초급학습자는 95ms, 고급 학습자들은 150ms의 길이 차이를 보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문말 음절을 매우 짧게 발화한다고 하였다.⁶⁾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의 산출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현재까지 지각의 측면에서 음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청자의 지각 반응 차이를 논한 논문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다음 장에서 청자의 반응을 비교한 실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5) 이 외에도 소재은(2010), 손인숙(2008), 이지현(2010), 준이치야카시(2009) 등이 일본어 종조사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6) 음절의 길이 이외에 음높이 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한국인이 -1.5임에 비해, 중국인 초급 학습자 집단은 -16.4의 기울기를 보여 매우 급격한 하강조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3. 청자의 반응 비교 실험

3.1 피험자의 선정

본 실험을 위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피험자 30명(언어권별 각 10명씩)이 참여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2-3학년 남녀 대학생(50:50)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평균 한국 거주 기간은 2.3년이었고,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피험자들은 모두 한국어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었다. 일반적으로 모국어 간섭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초·중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도 음의 길이 변화에 따른 청자 존재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을 모두 고급 학습자들로만 구성하였다. 방언이라는 요소가 또 다른 변수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 방언을 사용하는 한국어 화자들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은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 방언을 통제하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3.2 음성자료의 조작을 통한 변형 문장의 제작

우선 음성자료의 녹음을 위한 문장들은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종결어미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어 봐요, -잖아요'와 같이 뉘앙스에 따라서 화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어미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음성 자료는 40대 여성 동화 구현 작가에게 의뢰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속도로 문장을 읽도록 하여 녹음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된 단어 목록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문장 목록

Table 1. Base sentences for recording

- | | |
|---------------------------------|------------------------|
| 1. 같이 갈 거 <u>예요</u> ? | 6. 제가 할게 <u>요</u> . |
| 2. 아니 <u>요</u> . 괜찮 <u>아</u> 요. | 7. 어디 좀 해 봐 <u>요</u> . |
| 3. 죄송 <u>해</u> 요. | 8. 숙제했 <u>지</u> 요? |
| 4. 어제 봤 <u>잖</u> 아 <u>요</u> . | 9. 어제 드렸 <u>나</u> 요? |
| 5. 그건 하지 마 <u>세</u> 요. | 10. 밥 먹을래 <u>요</u> ? |

위의 <표 1>의 한국어 어미 목록 중에서 본고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보조사 '-요'가 있는 마지막 음절이다. 다른 음절들은 음성적 조작을 전혀 하지 않고, 제시된 목록에서 밑줄을 친 '-요' 부분만 음의 길이를 ±30%씩 변형시켰다.

우선 위의 단어 목록들에서 '-요'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분절(segmentation)하였다. '같이 갈 거 예요'의 경우 마지막의 두 음절은 이중모음과 활음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어 나오고 있다. 선행하는 모음과 후행하는 이중모음 중 활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절하기란 매우 어렵다.

Klatt(1973)과 Salza(1988, 양병곤(1994:25)에서 재인용)는 이중모음의 경계를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F2의 시작부분과 종결부분의 목표값 추정치의 중간(halfway criterion)을 경계선으로 잡아 분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모음에서 활음으로 이어지는 F2의 전이구간에서 발견되는 중간지점을 분절의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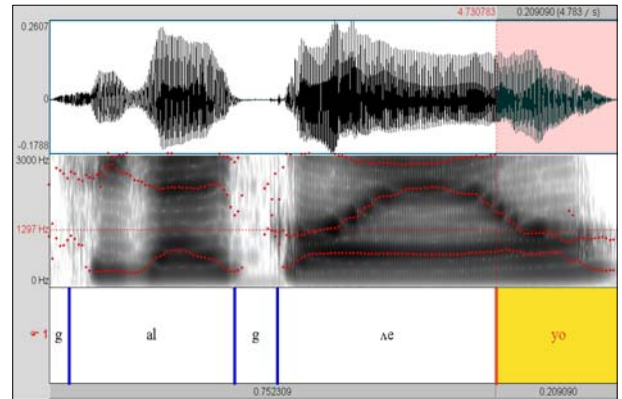


그림 1 '갈 거 예요' 문장의 분절 결과
Figure 1. Segmentation of 'Galgyeyeo.'

분절 후에는 위 10개 발화에서 추출한 '-요'를 원문장으로 선별하여 각 원 문장에서 발화 길이를 늘이거나 줄여서 조작하여 대조되는 문장을 만들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택된 10개의 문장에서 속도 변화에 필요한 부분을 분절한 후 음성분석기 Praat에 구현되어 있는 PSOLA 방식(Moulines & Charpentier 1990)으로 문장의 길이를 조작하였다. 원 문장에서 '-요'의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각각 10%, 20%, 30%씩 증가하는 가속 토큰(accelerated version)과 10%, 20%, 30%씩 감소하는 감속 토큰(decelerated version)을 만들어 총 70개의 문장을 만들었다. 이 과정은 양병곤(2004)의 Praat Scripts를 변형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토큰 당 3초씩의 휴지를 두고 문장을 무작위로 섞어 시료를 구성하였다.

3.3 실험의 절차

피험자들에게 간단한 언어적 배경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실험에 필요한 작업 용지를 배포하였다. 그 작업지에는 9점 척도의 표가 있어 녹음된 시료를 듣고 청자 예우의 정도(이하 친절도)에 따라서 1-9점 사이의 점수 중 하나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료의 소리가 매우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들리면 1점을,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느껴지면 9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Schiavetti(1992)에 의하면, 말소리의 이해명료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3, 5, 9점의 홀수 척도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9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논문의 특성상 음성 자료의 조작에 따른 청자들의 심리적

태도의 변화를 좀 더 세분화하여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자들이 지각하는 '친절함-불친절함'의 감정 상태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들 중에서 최대한 넓은 범위의 9점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시료는 한 번만 제공하여 다시 듣기 기능은 생략하였다. 이는 실제 발화 상황에서 청자들이 시료와 같은 발화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두 번씩 듣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청자의 감정 상태의 변화를 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총 실험 시간은 30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3.4 실험 결과 및 토의

총 30명의 피험자가 제출한 청자의 반응 결과가 국적별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자 간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2>는 SPSS 13.0을 이용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내적신뢰도 검사 결과(Chronbach alpha(α))
Table 2. Results of the internal reliability

국적 속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10	0.80	0.17	0.18
-20	0.41	0.03	0.74
-30	0.86	0.34	0.81
0	0.50	0.14	0.58
+10	0.43	0.28	0.29
+20	0.77	0.06	0.65
+30	0.65	0.23	0.68
평균	0.67	0.27	0.59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Cronbach's Alpha(α) =.675]과 일본인[Cronbach's Alpha(α) =.592] 집단은 평가자 간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집단은 [Cronbach's Alpha(α) =.273]으로 낮은 신뢰도 결과를 보였다. 즉, 중국인들은 변형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 3>은 보조사 '-요'의 ±30% 증감에 따른 국적별 청자의 반응을 평균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국적별 청자 반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atings (9-point scale)

국적 속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30	2.58 (1.72)	4.48 (2.54)	4.16 (1.97)
-20	3.27 (1.92)	4.78 (2.76)	4.53 (2.02)
-10	4.64 (1.99)	4.70 (2.65)	4.75 (1.89)
0	5.20 (1.96)	4.87 (2.44)	4.86 (1.90)
10	6.50 (1.93)	6.14 (2.52)	5.33 (2.04)
20	6.68 (1.78)	6.40 (2.10)	5.47 (2.45)
30	7.32 (1.54)	6.07 (2.56)	5.75 (2.08)

속도를 조작하지 않은 원자료와 10% 감속한 경우에는 언어권별로 차이가 거의 없이 평균 5점 정도의 반응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원자료의 경우에는 친절하게 들리거나 불친절하게 들리는 등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도가 -20%로 감속됨에 따라 한국인 청자의 반응이 3점대로 떨어졌다. 이는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 생겼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에 비해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4.78과 4.53의 점수를 부여하여 감정에 큰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30%로 감속한 토큰들에서는 한국인들과 외국인 학습자들의 반응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0%를 증속한 토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평균 6.5점을 부여함으로써 원자료에 비해 친절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고, 중국인 학습자들도 평균 6.1점을 부여하여 친절하게 들린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인 학습자들은 중국인들보다는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다.

위의 국적별 청자의 반응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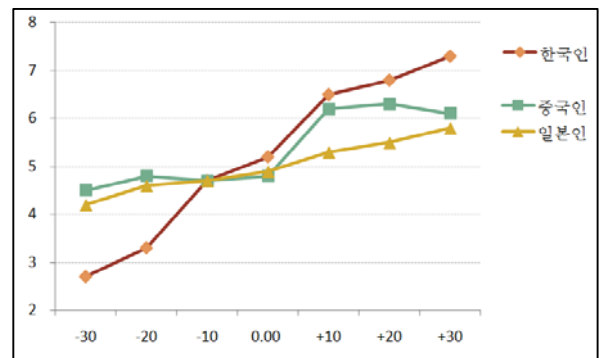


그림 2. 보조사 '-요'의 속도 변화에 따른 지각 반응의 결과 비교

Figure 2. Ratings on durational change of the particle '-yo'

x축은 원자료를 0으로 기준으로 하여 ±10~30%씩 속도를 조작한 것으로 문말음절의 길이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y축은

점수가 낮을수록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다고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직선 모양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지각(다이아몬드형으로 표시)은 중국인(사각형)이나 일본인(삼각형)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아래의 <표 4>에 나타나 있다. 7)

표 4. ANOVA 통계처리 결과
Table 4. Results of ANOVA/POST-HOC test

속도	자유도	F-ratio	유의확률	Tukey HSD
-30	F(2, 396)	33.5	*0.00	KOR>CHI, JAP
-20	F(2, 396)	18.3	*0.00	KOR>CHI, JAP
-10	F(2, 397)	0.1	0.90	n.s.
0	F(2, 390)	1.2	0.31	n.s.
10	F(2, 394)	11.6	*0.00	KOR>CHI, JAP
20	F(2, 395)	13.4	*0.00	KOR>CHI, JAP
30	F(2, 394)	24.0	*0.00	KOR>CHI, JAP

* $p < .05$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n.s.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검정 결과 -30~-20%의 감속토큰과 10~30%의 증속 토큰에서 한국인 집단은 중국이나 일본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인 집단은 마지막 음절인 ‘-요’의 속도가 약 -20% 정도로 줄었을 때부터 불친절하게 느끼는 정도가 중국인이나 일본인 집단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후검증인 Tukey HSD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과 일본인 집단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10% 정도 증속이 될 때부터 친절함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친절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인 Tukey HSD를 실시한 결과 이 토큰들의 결과에서 역시 중국인과 일본인 집단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각 언어권별로 변형된 속도에 대한 응답이 원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독립검정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표 5>에 나타나 있다.

7) 세 집단을 비교한 ANOVA 검정 결과 중 집단-내 자유도 부분이 속도의 증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는 피험자마다 응답한 문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이다.

표 5. 원자료와 속도 변화의 차이에 대한 t -test 결과
Table 5. Results of t -test on durational difference between zero base and manipulated sentences

국적 속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t 값	p	t 값	p	t 값	p
-30	-12.203	**0.000	-3.133	**0.000	-1.108	.269
-20	-8.545	**0.000	-1.487	0.138	-.245	0.807
-10	-2.432	*.016	-.507	0.612	-.472	.637
10	5.722	**0.000	2.027	*.044	3.625	**0.000
20	6.772	**0.000	2.621	*.009	4.425	**0.000
30	10.285	**0.000	3.819	**0.000	3.399	**0.000

* $p < .05$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p < .005$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 집단의 경우 속도를 변환하지 않은 원자료와 각 속도별 응답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시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 집단들은 원자료에서 10%를 증감한 자료에서부터 30%의 증감자료까지 모두 친절도의 정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의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인 집단 역시 원자료에 비교해 볼 때 -30% 감속한 자료에서 불친절함의 정도에 대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앞서 본 <표 4>의 결과와 비교하자면, 한국인 집단이 지각하는 것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뿐 중국인 학습자들도 원자료와 변환된 자료 사이의 친절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에서의 차이는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30%까지 증속한 자료들에서는 원자료와의 차이를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또한 <표 4>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친절함의 정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집단의 경우 -30~-10%의 자료에서 원자료와의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말음절의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일본인 집단은 친절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조사에 역할을 실어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게 될 경우 일본어의 종조사가 강조되어 길어지게 되므로 일본인 학습자들은 음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음의 길이가 증가한 10~30%의 모든 자료에서는 원자료와의 차이를 지각하고 있었다. L1인 모국어에서 음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L2에서 또한 문미음절의 짧은 음의 길이가 지각에 큰 변별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문장의 마지막 음절의 음의 길이를 조작한 자료를 통하여 L1의 배경이 다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청각 반응을 비교해 봄으로써 음의 길이와 청자 예우의 정도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인들은 앞서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경우 원자료에서 -30%까지의 10%씩 단계별 감속 자료를 통해 문말음절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불친절한 말투로 지각하는 반면,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들은 음절의 길이가 짧더라도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지각 반응의 비교 결과를 통해 친절함을 지각하는 정도와 문말음절의 길이의 변화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30~-20%의 감속 자료에서 불친절함을 느끼는 차이가 컸고, 10~30%의 증속 자료에서 친절함의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느끼는 것에 비해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정도의 지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지만 원자료와 변형된 자료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각하고 있었다. 즉, 고급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중국인 집단은 원자료의 속도가 감속하면 불친절함을, 증속하면 친절함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었으나 한국인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본인 학습자들은 감속 자료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반면 모든 증속 자료에 대해서는 친절함을 느끼는 지각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던 일본인 학습자들은 원자료를 10-30% 증속한 자료에서만 한국어 보조사 '-요'의 속도의 증감에 따른 친절도의 정도를 지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속 시료에서도 일본인들의 지각은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지각하는 정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절도의 정도에 대해서 증속 자료에서만 원자료와 차이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어 종조사의 장음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산출의 측면에서만 일부 논의가 있었던 문말음절의 장음화와 관련하여 문말음절의 음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한국어 모어 청자 및 제 2언어 학습자들의 지각 반응을 살펴보았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향후 발음교육에 있어 조사 '-요'가 갖는 서법의 기능을 억양으로 실현시키고자 할 경우 음절의 길이가 한국인 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Akashi, J. (2009). A Study of the Japanese Sentence-Final Particle, M.A.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아카시 준이치 (2009). 일본어 終助詞의 기능에 관한 一考察.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e, D. H. (2002). An Approach to Teaching of Korean '-요' and Japanese '-ね'・'-よ'.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2, 21-47.
(배덕희 (2002). 한국어 '-요', 일본어 '-ね'・'-よ'와 그 교육. 일본어문학, 12, 21-47.)

Choe, H. J. (2009). A Study on Prosody Teaching Based on Experimental Phonetics Approach to Chinese Korean Learners' Errors on Stress,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최현정 (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강세 오류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을 통한 운율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Choe, H. J. (2011). Modification Effects on Prosody Errors of Chinese L2 through Syllable Duration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45, 309-330.
(최현정 (2011). 음절 길이 교육을 통한 중국인 학습자의 운율 오류 수정 효과 연구. 이중언어학, 4, 309-330.)

Chung, S. M. (2010). Sentence Final Intonation of Chinese: An Experimental-phonetic approach, M.A.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정승미 (2010). 中國語 文尾 억양에 대한 實驗音聲學的 연구. 부산대학교, 부산.)

Han, C. Y. et al. (2006).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Hollym Publishers.
(한재영 외 (2006). 한국어발음교육, 한림출판사.)

Jung, M. S. (2003). The Intonation of Japanese and Chinese Korean-learner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4(1), 233-247.
(정명숙 (2003).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억양. 한국어교육, 14(1), 233-247.)

Kim, E. A., Park, K. Y., Park, H. Z. & Jin, M. E. (2008). Methodology of Teaching Korean Intonation,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9(2), 1-31.
(김은애·박기영·박혜진·진문이 (2008). 한국어 억양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19(2), 1-31.)

Kim J. S. et al. (2005). *Korean Grammar for Foreigners 2*. Seoul: Communication Books.
(김정숙 외 (2005).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Kim, J. H. (1999). A Phonetic and Phonological Study on the Neutral Tone in Mandarin, M.A.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김지혜 (1999). 표준 중국어 경성의 음성, 음운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Kwon, S. M. (2011). A Study of the Paralinguistic Features of Korean Intonation Produced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Focused on "Friendly" Delivered in Endings of the Declarative Sentences, *Bilingual Research*, 45, 1-25.
(권성미 (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억양의 특성 연구—문두 강제구와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 1-25)
- Lee, B. (2009). Japanese Language: A Study on Korean Sentence Final Form Corresponding Japanese *ね* and *よ*.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14, 217-235.
(이봉 (2009). 일본언어(日本語) : 「*ね*」, 「*よ*」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말 형태에 관한 고찰. 일본언어문화, 14, 217-235.)
- Lee, H. J & Kim, J. H. (2001). *Korean Endings and Particles Dictionary for Korean Learners*. Hankookmunhwasa.
(이희자·김종희 (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사전: 한국문화사.)
- Lee, I. S. (2004). *Korean Gramma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이익섭 (2004).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Lee, I. S., Lee, S. O. & Chae, W. (1997). *Korean Language*. Shingu Publishing.
(이익섭·이상억·채완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Lee, J. H. Japanese Language: A Study on Final Particle *ね* and *よ* - Focusing on Misuse with Respect to Care -,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16, 307-326.
(이지현, (2010). 일본언어(日本語) : 종조사 「*ね*」, 「*よ*」의 일고찰(一考察) — 배려 측면에서의 오용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16, 307-326.)
- Paik, P. J. (2006). *Korean Grammar as a Foreign Language*. Hawoo, Seoul.
(백봉자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하우.)
- Park, K. H. (2009). The Study of Teaching Korean Final endings' Intonation - A Focus on Intonation Difference of Modal meanings, *The Studie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4, 373-397.
(박기영 (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결어미의 억양 교육 방안 — 특히 양태 의미에 따른 억양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4, 373-397.)
- Schiavetti, N. (1992). The measurement of speech intelligibility. In R. D. Kent (Ed.), *Intelligibility in Speech Disorders*. Amsterdam, The Netherland: John Benjamins Co.
- So, J. E. (2010). A Study on Japanese final particle 「*ね*」 and 「*よ*」, M.A.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소재은 (2010). 일본어 終助詞 「*わ*」와 「*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Son, I. S. (2008). A Study on Treatment of Final Particles “*wa* (*ね*)” and “*yo* (*よ*)” in Japanese Language Textbooks I & II of Korea's Seventh Educational Curriculum', M.A.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손인숙 (2008). 종조사 「*ね*」 「*よ*」의 취급 실태 분석: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I·II를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Suh, C. S. (2006). *Korean Grammar*. Hansebon.
(서정수 (2006). 국어문법. 한세본.)
- Tanaka, S. & Kubozono, H. (1999). Introduction to Japanese Pronunciation: Theory and Practice. Tokyo, Japan: Kuroshio.
(田中真一·窪園晴夫(1999). 日本語の発音教室: 理論と練習. くろし出版.)
- Takanori, H. (1996). Studies in the Function of "ne" and "yo" as Honorific Expression. *Study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29(1), 349-367
(히카리 타카노리 (1996). 대우표현으로서의 종조사 「*ね*」 「*よ*」의 기능과 용법에 대해서. 日語日文學研究, 29(1), 349-367.)
- Yang, B. G. (1994). A Phonetic Study of Diphthongs. *Donguei Journal*, 21, Donguei University. 19-36.
(양병곤 (1994). 이중모음의 음성학적 고찰.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21, 19-36.)
- Yang, B. G. (2004). *Speech Analysis and Manipulation Using Praat Script*. Busan: Mansoo Publishing.
(양병곤 (2004). Praat Script를 이용한 음성분석과 변형. 부산: 만수출판사.)

• **윤은경 (Yoon, Eunkyung)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Post-Doc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인문동 3동 309호
Tel: 010-3161-3058
Email: heavynub@hotmail.com
관심분야: 음성학, 발음교육

• **김슬기 (Kim, Sulki)**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Research Assistant
Email: skimpb@gmail.com